

## “경주가 해냈다”... 역대 최고 APEC 개최지 도약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의결 도심 곳곳 현수막, SNS 축하 도배 경제적 파급 효과 2조원 ↑ 예상 주낙영 경주시장 “국격 높이는 완벽한 행사로 만들겠다” 포부 이철우 도지사 “역사문화 강점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HICO 전경.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시가 선정되면서 경주 전역이 축제 분위기가.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주’를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선정위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해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경주와 함께 인천시, 제주도와 치열한 유

치 경쟁을 벌인 가운데 나온 성과이기에 경주시민들은 환호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의결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에 붙었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SNS에는 이를 축하하는 포스팅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손운희(54)씨는 “경주시민의 염원으로 유치가 성공했다”며 “경주의 자긍심, 경주시민의 열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53)씨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로 결정됐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경제

적 파급효과가 2조원을 웃돌 것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50%를 차지한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국 정상들 비롯해 6000여명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 등이 대한민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이다.

주낙영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주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APEC 경주 유치는 1000년 수도 역사문화 도시 강점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2025 APEC 개최 도시가 인천 제주 경주 간 치열한 경쟁 끝에 경주로 선정하기를 위원회가 건의했는데 이는 타도시에 비해 역사문화의 강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또 “경주는 이미 1500년전에 중국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에 들 만큼 위대한 역할을 했는데도 그동안 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해 작은 도시로 전락해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이제 2025 APEC을 계기로 다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대 어느 대회 보다 멋지고 알차게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주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경정 도시 인천과 제주에 위로와 함께 또 다른 국제 행사가 유치돼 위대한 기회를 갖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상진기자wbaf12@daum.net

## 경북도, 하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 단행

인사 3급 승진 9명, 4급 승진 21명 실국장·부단체장 16명...내달 1일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에 따라 지난 21일 4급 이상 승진 및 실국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정보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인사 규모는 3급 승진 9명(직무대리 2명), 4급 승진 21명(직무대리 4명), 실국장 및 부단체장 16명이다.

먼저 3급 실국장급은 퇴직 6명, 조직개편에 따른 산림자원국 신설 등으로 승진 7명 직무대리 2명이 됐다.

이번 승진자와 기존 국장급 중 안정

적인 조직운영과 도정 핵심과제인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능력 있는 간부를 전진 배치했다.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저출생 극복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공식 기구가 되면서 직위를 겸임하고 있던 안성렬(51)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고 고시출신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을 유임시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호흡을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이끌고 갈 계획이다. 환경직 박기완(58) 맑은물정책과장은 기후환경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부단체장의 경우 경북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바뀌게 되는데 도와 시·군의 상생과 주요 역점사업을 협력해

나아 갈 적임자 선발이 중요한 만큼 시·군 실정에 부합하고 예산, 자치, 경제 등 주요 부서를 경험한 역량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다음 시·군과 협의의 통틀어 발표를 했다.

특히 이번에 주목을 받는 사람은 윤희란(52) 예산담당관 경산부시장 보임, 이정아(56) 식품의약과장 의성부군수 보임이다. 여성 3급 부단체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 군수들의 열린 시·군정에 대한 면모가 엿보인다.

윤희란 담당관은 자치, 복지, 인사(팀장), 일자리경제, 예산 업무를 두루 거친 도정 일꾼으로 업무를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이정아 과장은 수의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과장 등 부서장 경험이 풍부하고 식품의약과장 재직 시 푸드테크 산업의

기반을 다져 냈다. 앞서 지난해 박상연(58) 울릉부군수가 4급 부단체장으로 나왔다.

부서장급인 4급은 행정직 11명(승진 8명, 직무대리 3명), 기술직 10명(승진 9명, 직무대리 1명)으로 총 21명이 승진을 했다.

고시출신으로 3년간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 구상과 업무경력을 쌓은 흥인기 정책기획팀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해 민간투자활성화 분야를 맡길 계획이다.

또 도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농업 대전환, 안전제안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직렬을 고르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직과의 균형성도 갖추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4급 이상 간부급 인사에 이어 5급 이하는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반영해 7월 중순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기업·인재 모이는 경북형 지방시대 ‘활짝’

도, 기획발전특구 ‘전국 최대’ 포항·구미·안동·상주 4개 지역 152만평 지정... 14조원 투자 견인

경북도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획발전특구 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경북도는 4개 지역 152만평(포항 77만평, 구미 57만평, 상주 11만평, 안동 7만평)이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돼 특구를 신청한 시·도 중 전국 최대 면적의 위상을 갖게 됐다.

주요 투자기업으로 에코프로, SK실

트론,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퓨처엠, LG이노텍 등 총 33개 기업이 참여하며 14조원의 투자와 7000여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북형 기획발전특구 모델은 지방정주형 특구와 투자촉진형 특구로 추진된다.

도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획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경북도와 이차전지 분야 앵커기업인 에코프로와 기획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기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앵커기업은 투자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안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 확대

##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도민의 복리 증진”

### 경북도지사·도교육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원안 가결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등 촉구 제12대 제2기 특위 앞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세서이월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유보통합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지방 상생 기업 펀드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해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만드는 데 적용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은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훈련인데 물품 관리 감독이 부실하며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가 국고로 귀속된다며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타시·도에서 도입중인 증가산금제도를 도입해 40%나 되는 금액을 감액해 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이 저해되니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호광 의원은 교육청의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통해서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박재야 의원은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하위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던 인식 개선 관련 교육보다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영유아 대상 조부모 돌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으며 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주

문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 성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실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국외출장여비가 매년 사고이월 되고 있다며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은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독도 영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차원에서 관련 사업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경북도에서 재추진을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앞으로 독도 관련 사업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고소 살수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소방장비는 빠르게 확보해 화재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은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질의하며 앞으로 통합이 되면

자치소방이라고 간주를 하고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다.

최병준 의원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며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피해복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은 기술직 공무원 사기양상을 위한 인사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학생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박 예방 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문제

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동일성이 있는 시군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향후 벌어질 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도가 원자력 관련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에너지 독립을 위해 경북이 선도적인 자세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초지자체와도 협력해 에너지 분야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재철 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예결특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날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김주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위해 주도적 역할하겠다”

### 하반기 시장군수협의회장 의성군수 만장일치로 추대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영덕 강구건강활력센터에서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장일치로 하반기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주수 군수는 협의회 운영과 함께 경북을 대표해 중앙정부와 연계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입안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을 추진한다.

특히 22개 시·군 간 상호 소통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에서 경북대표로 활



동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조율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민선8기 하반기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시기인 만큼 앞으로 경북도의 목

소리가 적극 반영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경주시의회, 내실 있는 행감 추진 ‘눈길’

### 행복위·경산위 소속 의원들, 주요 현장방문 실시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체육센터, 동궁과 월지, 대동원공영주차장, 대동원(천마총)을 방문해 이용자의 다양한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는 현장방문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종합보충감사를 이어갔다.

경제산업위원회도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마무리한 뒤 민속공예촌 현장을 찾아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방문객의 증가를 위한 실효성있

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토함산 석굴암 인근 현장을 확인하고 재해 방지에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임할 행복위원장은 “관련부서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지만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현장방문이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보다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현장에 나오게 됐다.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심 기자wbaf12@daum.net

# 시민과 격의 없는 소통

### 조지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민원의 날 네 번째 토요일 소통의 날 운영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소식 및 소통의 날이 지난 22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및 경산 출신 도의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협·단체 관계자,

국민의힘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과 ‘소통의 날’ 운영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2번째 토요일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정하고 경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지역사무소에서 시민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경상투데이 캠페인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늘봄

<p><b>조기퇴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li> <li>근로자 임금 보전</li> <li>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li> </ul>	<p><b>학교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li> <li>거점형 돌봄센터 구축</li> <li>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li> <li>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p><b>심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24시 어린이집</li> <li>아픈 아이 긴급 돌봄</li> <li>24시 응급치치 편의점</li> </ul>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지역 경제 버팀목’ 성실·모범납세자 45인 선정 ‘스마트 물관리’ 경북 기업이 해냈다

성실납세 35명·모범납세 10명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혜택 제공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적용

경북도는 올해 성실·모범납세자 45명을 선정하고 지난 21일 도청 K장에서 모범납세자 10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실·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는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공헌도가 뚜렷하고 모범이 되는 도민을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 45명 중에는 성실납세자 35명(개인 22명, 법인 13명), 모범납세자 10명(개인 4명, 법인 6명)이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에 있는 자로 납세자별 지방세 납부세액 규모,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모범 도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날 표창패 수여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10명(개인 4명, 법인 6명)이 참석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최근 3년간 173건, 120억원을 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및 다수의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

스틸씨아일랜드는 지방세를 납부 기간 내 성실히 내며 사랑의 연탄나눔, 산불피해 복구 인력을 위한 급식 지원 등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김지호씨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장학금을 맡기어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했고 재정적 어려움과 교통의 불편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왔다.

한편 올해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선정일로부터 1년간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주시고 지방재정에 이바지해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성실·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모,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모범 도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날 표창패 수여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10명(개인 4명, 법인 6명)이 참석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최근 3년간 173건, 120억원을 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및 다수의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

스틸씨아일랜드는 지방세를 납부 기간 내 성실히 내며 사랑의 연탄나눔, 산불피해 복구 인력을 위한 급식 지원 등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김지호씨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장학금을 맡기어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했고 재정적 어려움과 교통의 불편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왔다.

한편 올해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선정일로부터 1년간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주시고 지방재정에 이바지해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성실·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내 성실히 내며 사랑의 연탄나눔, 산불피해 복구 인력을 위한 급식 지원 등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김지호씨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장학금을 맡기어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했고 재정적 어려움과 교통의 불편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왔다.

한편 올해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선정일로부터 1년간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주시고 지방재정에 이바지해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성실·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고향에 기부하고 휴가 보너스도 받자!... 道, 경품 이벤트 진행

8월 4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 시  
답례품으로 지역 인기 상품 지급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도로 떠나는 센스있는 여름휴가’를 테마로 고향사랑기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들이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유도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답례품을 경품으로

추천·지급함으로써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투어패스, 흑돼지 밀키트, 삼겹살, 커피드립백, 월영교달빵, 호두떡방, 와인, 안동소주 등의 지역 인기 상품을 답례품과 경품으로 내걸었다.

행사는 24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6주간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북도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

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매주 기부자 수의 20% 범위에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50만원 이상 기부자의 경우에는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 기부자 수의 20% 범위에서 별도로 선정한다.

이벤트 경품은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많은 국민이 기부도 하고 지역 인기 명물을 답

례품과 경품으로 받아 경북에서 센스 있는 휴가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보환연, 알앤에스랩과 협력  
엔택트 센싱 기술 현장에 적용

경북도보보환환경연구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 기업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소규모수도시설(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에 적용할 실시간 수질측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KT, ㈜알앤에스랩과 체결한 ‘엔택트 센싱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원격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량관리는 물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필요한 염소를 자동 투입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앱으로 실시간으로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경고신호와 음용 금지 문자를 전달하는 지능형 상수도 관제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알앤에스랩은 정부의 R&D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소기업으로 ㈜KT와 함께 LTE 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수질 측정기를 개발했으나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개발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 요청을 받아 2~3개소 정도의 규모로 시범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을 계기로 ㈜알앤에스랩은 사업 기반을 경산에 있는 경북테크노파크로 이전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수영장 수질 관리시스템의 국산화, 수돗물 원격검침 시스템 조달 등록 등을 통해 경북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엽 ㈜알앤에스랩 사장은 “매출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해 사업 기회를 넓혀준 경북도에 감사하고 경북도 물 산업 선도기업으로서 경북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정상섭 보보환환경연구원 북부 지원장은 “스마트 물관리 기술은 물 산업에 선도할 기술로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적극 발굴해 경북도 도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물복지 구현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우리 경북도보보환환경연구원은 계속해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참전 유공자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경북도교육장학회, 장학금 수여

경북도교육장학회는 지난 20일 분청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후손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거행했다.

경북도교육장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자 각 참전유공자회에서 추천받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참전 유공자 후손 20명에게 50만원씩 해마다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대구교육대학교 졸업자 중 경북교육청 소속 전문직에 임용된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교회’의 최원해 회장이 참석해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임종식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

하신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교육청,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구미 선주중·고서 홍보자료 배부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구미시에 있는 선주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제38회 마약 퇴치의 날(6월 28일) 맞이 등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등교 시간에 맞춰 경북교육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경북지부),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학교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 증가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학생과 일반인에게 마약 예방 홍보자료를 나눠 주며 마약에 대한 유해성을 적극 알렸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달 동안 마약 예방 홍보 주관을 운영토록 22개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초·중등 마약 예방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해 “우리 아이들을 마약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 건강한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경북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축방역 추진상황 집중 점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된  
상주 현장 방문해 방역 실행 확인  
임상증상 나타날 경우 신고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북도를 방문해 15일 발생한 영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방역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송 장관은 도청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함께 현안사항을 협의한 후 상주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지난 1월 15일 영덕에서 첫 발생 이후 5개월 만에 영천에서 발생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가 사육 2만5000두에 대해 살처분·매몰했고 관련 역학농장, 계열농장, 위탁농장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에서는

전체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도에서는 인접 시군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하고 137대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주요도로와 축산시설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또 양돈농가에 멧돼지 기피제 및 소독약 배부 등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경북도는 야생멧돼

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검출되는 등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

의 말을 전했다.  
경북도는 이번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멧돼지 발생 빈도 등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공받아 위험도가 높은 농가들을 집중 관리하는 방역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월성4호기 사용후연료 저장수 바다로 누설

계획예방정비 중 저장수 2.3t 방출  
유해 방사선량 조사 시 위험성 미미  
한수원, 해양환경 영향평가 예정

정기 검사를 받던 월성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에서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저장수 2.3t이 해양으로 방출됐지만 저장수의 유해 방사선량은 일반 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 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4시 34분경 제20차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계통의 열교환기의 이상을 인지하고 관련 계통 격리조치 및 시료분석을 수행한 후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저장수가 해양

으로 미량 누설됐음을 오전 7시 40분경 확인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삼중수소 1.07×1010Bq, 감마핵종 2.39×105Bq이 해양으로 누설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연간 배출제한치 대비 삼중수소는 10만분의 1(0.001%), 감마핵종은 1000만분의 1(0.000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월성원자력본부는 해양환경 시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해양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용후연료저장조 저장수 누설은 없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상주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사할’

정상원 부시장 재해취약지역 방문  
배수펌프시설 상태 등 상황 파악

상주시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했으며 20일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3대 인명피해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현장점검에는 정상원 부시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북동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산사태 취약지역을 방문해 차단시설 정상 작동 여부, 펌프시설 상태, 인명피해 우

려지역의 상황 등을 확인했다.  
상주시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읍·면·동별 주민대표 훈련 등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왔으며 추후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상원 부시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를 앞두고 각종 재해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덧붙여 “유관기관 및 시민과의 협업을 강화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 청송읍 군청사거리 회전교차로 ‘상시 단속’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대상

청송군은 청송읍에 위치한 군청사거리(세마로금교 앞)에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에 이따금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

활한 차량 흐름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되게 된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 경주 노서동 다세대주택서 ‘불’... 인피 無

소방차 17대 투입해 초동 진화

경주시 노서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 8분경 경주시 노서동 5층 높이 A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17대와 소방관 29명을 투입해 오전 1시 35분경 불길을 잡았다.

이날 화재는 베란다 세탁기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wba112@daum.net

## 군위서도 ASF 검출... 대구시, 긴급방역 총력 대응

지역 돼지농가 2곳서 병원균 검출  
방역대 돼지농장 12호에 정밀검사

대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영천 돼지농장에서 발생(15일)한 데 이어 군위군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19일)됨에 따라 양돈 농가 질병 유입 차단과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유형과 치사율이 달라지기는 하나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지난 2019년 9월 17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축질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를 유지 중이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가축질병방역대책 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대구시 돼지사육 현황은 50호 11만 2000두이며 군위군이 43호 10만 4000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군위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에 따라 인근 지역 돼지농장 12개소에 대한 방역대를 설정했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 가축·차량에 대한 이동통

제·소독 실시와 함께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정밀, 임상검사 추진으로 돼지농장 내로 야생멧돼지의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ASF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전염병으로 양돈농가에는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폐사축 발생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영역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http://www.kangnamh.co.kr)



# 경주시, 조직개편 단행... 실무형 조직 '방점'

### 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신설 도시재생사업본부 폐지·재편

### 주낙영 시장 "행정수요 맞춰 전문성 있는 효율 행정 실현"

경주시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등 1개 사업본부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7국 1사업본부 체제로 변경되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젊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3월 인구수에 의한 시·군·구의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우선 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시민복지국이 신설되고 날로 증가하는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녹지국이 신설된다. 또 △농림축산해양국은 '농축산해양국'으로 △시

민행정국은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도시재생사업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부서를 소관 성격에 맞는 국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 직속이었던 △인구청년담당관은 시민복지국으로 소속을 옮겨 '저출생대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도시담당관은 행정안전국으로 소속을 옮겨 '디지털정책과'로 이름을 바꾼다.

폐지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속 철도도심재생과는 도시개발국으로, 자원순환과와 도시공원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옮겨지며 △사적관리과는 사적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바꿔 업무를 이어간다. 또 장애인시설의 지원 및 운영을 위

해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고 보다 민첩한 행정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과 환경관제팀과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 변동은 없으며 관련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라며 "핵심 공약의 추진에 속도를 더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김성학 부시장 "항상 경주와 함께할 것"

### 28일 퇴임... 36년 공직 마무리 실력 출중한 '행정 전문가' 정평



물관을 거쳐 경상 입국 장소인 김해국제공항 내 VIP 의전실을 직접 안내하며 APEC 정상 회의 유치에 힘을

김성학(사진·59) 경주부시장이는 오는 28일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36년 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한다.

김 부시장은 지난 1988년 8월 월성군청(現 경주시청) 양북면사무소(現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9급 서기보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1992년 경북도로 자리를 옮긴 뒤 정책기획실 기획조정담당, 혁신법무담당, 소통협력담당,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단장,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처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

이러 지난해 1월 고향이자 공직자로 첫 발을 디딘 경주시에 부시장으로 취임해 환경부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가하천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등 경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단 경주 방문 당시, 대통령과 월정교, 국립경주박

을 실었다. 특히 김 부시장은 행정 9급 서기보로 시작해 3급 부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가 고향인 김 부시장은 현곡초·문화중·경주고를 거쳐 경북산업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생활 중에도 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학구파 공무원'으로도 불린다.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상급자와 부하직원 모두가 선호하는 '스마일맨'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성학 부시장은 "동료, 후배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감사를 느끼신다"며 "비록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지역의 일꾼이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그대로 간직할 채 경주의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市 농촌지도자회, 농업환경 온실가스 감축·실천 '앞장'

### 기후위기 극복 위한 전문가 특강 농업인 대상 건강관리 힐링 코칭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 '눈길'

경주시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미래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연합회 및 읍·면·동지회 대의원 등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 이어 농번기까지 지친 농업인을 위해 행복·웃음 치유를 통한 건강관리 힐링 코칭 시간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2050 탄소중립 희망농촌 실현'의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도 펼쳤다.

차영득 회장은 2050 탄소 중립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일상 실천 방안에 대해 1071명 농촌지도



자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의 리더단체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농촌환경정화활동을 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토양과 수질오염을 없애

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농업재해 예방과 농촌환경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학 부시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앞

장서 실천하고 있는 농촌환경정화활동이 나비효과가 돼 살기 좋은 농촌, 경주를 살리는 농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 내년 5월까지 5억4천만원 투입 시 전역 물 대상 재이용 구체화

경주시가 물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시 전역

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운영현황, 수요량 전망, 재이용 목표량 등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물 재이용 시설은 지역 내 경주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 시설을 비롯해 빗물 재이용시설, 중수도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물 재이용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물 재이용 목표량 산정과 상세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에 기존 시설 외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다수 발굴해 물 재이용량 확대와 더불어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물 재이용

사업은 물 부족의 시급성, 재정현황,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효과 높은 사업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이용된 물은 주로 청소나 조경용수, 처리장 장내용수 등으로 사용된다. 주낙영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물 복지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Wee센터, 자녀 양육 돕는 '든든한 조력자'

### 화랑도 Wee패밀리 부모 교육 성황

경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2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경주교육지원청 다운실에서 화랑도 Wee패밀리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화랑도 Wee패밀리 부모 교육은 부모 자녀 간 관계 향상 도모 및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양육 기술과 대처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한동대학교 상담심

리사회복지학부 가요한 교수가 '자녀와 부모의 정서 다루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다름을 알고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화랑도 Wee패밀리 부모 교육을 통해 위기에 처한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및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MZ세대 이해를 위한 탐색' 청소년상담센터 교육특강

경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1일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MZ세대 이해를 위한 탐색'이라는 주제로 계명대학

교 심리학과 정대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다음세대의 트렌드와 미래 산업의 발전방향 및 자녀세대의 특성에 대한 교육내용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세대의 환경에 맞는 대외와 자녀세대 특성에 맞는 소통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기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성플랫폼·나경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감포 나경고운모래 해역 **7만7820㎡**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리조트 조성

# 대구시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해 행정 총동원

### 홍준표 시장, 대책 논의 간부회의 자체 측정용역 9.4점 전년대비 ↑ 취약 분야 발굴·개선 등 '온 힘'

대구시는 지난 20일 홍준표 시장 주재로 올해 두 번째 파워풀 대구 청렴간부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024년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

역자치단체 중 최상급인 2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여세를 몰아 올해도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청 내의 청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13일간 외부 고객 1021명, 내부 직원 2406명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을 실시했다.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40점으로 지난해 자

체 청렴도 측정 결과 대비 0.01점이 향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전망도 밝게 했다.

이번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는 하반기 부서별 청렴노력도 평가(청렴 올림픽)를 통해 '2024년 성과관리 종합평가'에 반영된다.

김수중 감사위원장은 "이번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렴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문화예술훈원, 영호남 예술 교류길 연다

### 호랑가시나무창작소와 MOU 문화예술 저변 확대 '한마음'

(재)대구문화예술훈원(원장 김정길)과 광주시 남구 소재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unki)는 지난 20일 지역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두 기관 예술인의 교류 및 협력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상호 교류 △문화예술에 기반한 사업의 공동 기획,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지난 2014년 정식 레지던시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1년 차를 맞이한 민간 레지던시로 국내를 넘어 해마다 다양한 해외 입주작가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광주의 대표적 레지던시다.

또한 창작소는 지난 1904년 서양 선

교사들이 조성한 양림동 일대의 사택을 리노베이션해 전시 공간 '아트폴리곤'과 작가들이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은 제 13회, 14회 광주 비엔날레 메인 전시장으로 활용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7월 수창청춘맨션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대구예술발전소, 달천예술창작공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4개 기관의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순태 대구문화예술훈원 문화예술본부장은 "호랑가시나무창작소와 대구예술발전소는 리노베이션한 건물을 활용해 전시 및 예술인을 지원하는 면이 굉장히 넓어있다. 영호남 지역의 예술인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iM뱅크 "헌신·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보훈가족 위한 후원금

### 대구보훈청 후원금 전달식 가져 2024행복해孝나들이 전액 지원 고령의 보훈가족 복지 증진 앞장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1일 iM뱅크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iM뱅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보훈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하고 있다.

이번 보훈가족을 위한 후원은 평소 나들이가 어려운 고령의 보훈가족을

위해 '2024행복해孝나들이' 행사에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훈복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숙 청장은 "해마다 보훈가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iM뱅크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해 일상생활 속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교통공 경산승무팀, 이웃 사랑 널리~

대구교통공사 경산승무팀은 지난 21일 북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 라면, 휴지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경산시 조영동에 사무실을 둔 경산승무팀은 지난 2013년 북부동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활동 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물품 기탁과 함께 지역 내 환경 취약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방면으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현구 팀장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탁한 물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산승무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계화 동장은 "소중한 나눔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감사하며 다양한 역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군위군보건소, 매달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서비스로 '큰 호응'

### 경로당 31개소·주민 400명 방문 치매예방 생활수칙 등 건강 교육

군위군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1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모아 담당자들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올해 초 보건소 브라운 백 미팅에서 제안돼 추진 중인 올해 군위군 보건소의 시책사업이다.

또한 현재까지 31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 400여명의 주민들에 치매예방 생활수칙, 건강 스트레칭, 금연, 맨발 걷기, 손 씻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의 건강증진 교육과 침 시술 등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은 헛수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군위를 수서1리를 방

문했으며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경로당 자리가 좁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열렬한 호응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서1리 주민은

"날이 더워 지쳐있었는데 오랜만에 손주같은 젊은 친구들을 많아서 저절로 힘이 난다"며 "보건소가 통째 우리 마을로 옮겨진 것 같다. 움직이기 어렵다고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주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김진열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마을 곳곳을 방문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마을 곳곳 불편한 어르신이 없도록 충직한 보건사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홍보를 위해 군 SNS에 동영상 제작·배포한 바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안경 산업 진로체험 '인기'

대구보건대학교 Hi-FIVE HiVE센터와 국제교류처는 지난 19일 경북공업고등학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 Park High School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견학과 안경광학과 안경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의 일환으로 안경관련 기능인력의 안경 산업 진출 기회 확대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역 특화산업인 안경 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공고와 남아공 재학생들은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치기공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와 인당뮤지엄 등을 돌

러보며 교육시설과 장비를 체험했다. 특히 안경광학과에서는 안경 산업 진로체험과 시각·색각검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Hi-FIVE HiVE센터 장준영 센터장(57·안경광학과 교수)은 "대구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재학생들에게도 대구 지역의 안경 산업을 소개하고 관련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2022년 안경 산업 특화분야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대구시 북구, 대구과학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와 지자체-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특화분야 안경 산업 발전을 위한 안경 산업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양질의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눈교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대구광역시 군위군

## 파워풀 대구와 함께

###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영양 발효기술’로 지역 경제 숨 불어넣는다

군, 민간지역상생협약사업 선정 발효공방1991 3년간 157억 투입 지역 농산물 100% 사용 등 호평 체임·기술 연계 복합플랫폼 조성



영양군은 농촌협약(366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관한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이를 지원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군은 ㈜발효공방1991과 협력해 올해부터 3년간 15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통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조·체험·휴식 시설인 발효감각 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작나무숲, 지훈

예술제 등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성과 추진력,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협력 업체인 ㈜발효공방1991 역시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지

역에 대한 기여와 상생을 목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발효 상품 생산에 있어 지역농산물 100% 사용, 시설물의 무료 대관, 발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민들을 배려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도 돋보였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된 질 좋은 발효식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양질의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사업을 통해 우리 영양군의 건강한 발효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면서 “앞으로도 ㈜발효공방1991과 지역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오고 싶은 영양, 살고 싶은 영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 친절 문경의 초석 ‘나도 산복면장이다’ 순항

열다섯 번째 1일면장 박현자씨 근무 민원인 안내·사업 현장 근무자 격려



문경시 산복면은 지난 20일 열다섯 번째 범시민 친절 운동 ‘나도 산복면장이다’를 진행했다.

이번 1일 면장으로는 박현자 여성농업인연합회장이 근무했고 오랜 단체생활로 터득한 봉사 정신으로 민원인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또한 자전거 무상 수리사업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나도 산복면장이다’는 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세계 1등 친절도시 문경’ 실현을 위해 산복면에서 계획한 특수시책으로 매주 1명의 관변단체장이 면장직 체험을 통해 친절함을 체득하고 소속 단체 회원 및 이웃에게 전파하며 친절 운동 확산에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목요일마다 실시하게 된 친절 운동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박현자 회장은 “1일 면장으로 근무하게 돼 부담감도 많이 느꼈지만 역지사지로 1일 면장 근무를 해보니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고충을 많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안동 중구동-옹부어울림 마을사협, 도시재생 위한 힘찬 첫발

거점시설 관리 위수탁 업무협약 4개소 운영 수익 환원 선순환 구조



안동시는 지난 19일 중구동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옹부어울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과 중구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공공공간을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중구동 도시재생거점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공공간이자 주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협동조합은 중구동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외 4개소의 거점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익의 일부를 마을로 환

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점용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방치돼 있던 거점시설을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라며 “거점별 특색을 활용해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중구동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 의성, 기억이음 치유타발 감자 수확 ‘훈훈’

수확물 나누고 요리 실습으로 힐링

의성군은 지난 20일 봉양면 삼산리 치매보듬마을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억이음 행복 치유타발’에서 4월이 심은 감자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기억이음 행복 치유타발은 의성군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사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500평 규모의 유휴 텃밭을 활용해 봉양면 삼산리 치매보듬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가꾼 수확물을 취약계층에게 나누고 요리 프로그램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총 8회기로 운영되며 이날 요리로 알감자 버터구이를 준비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력 강화, 정서 지지,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보듬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치매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씨 어르신은 “함께 가꾼 텃밭의 감자를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기쁨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의성군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감자를 수확하니 수확의 기쁨이 더 큰 것 같다”라며 소감을 표현했다.

김주서 군수는 “공동체 치유농업 활동이 지역주민에게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 내 유휴 텃밭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봉화 장수팔팔 운동교실, 주민건강 ‘앞장’

봉화군보건소가 지역주민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 UP! 근력UP! 장수팔팔 운동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운동교실은 지역주민의 신체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 운동 강사를 초빙해 스트레칭, 근력강화운동, 부위별 운동 방법을 교

육하고 운동교실 진행 전·후로 나눠 체성분을 측정한 후 대상자 맞춤 건강 상담도 실시한다.

특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심신수련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체계화한 기공체조와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의 복합적인 심신수련법인 요가교실을 전문 강사 지도 아래 주 2회씩(△기공체조: 월요일, 목요일 △요가: 화요일, 금요일) 운영하고 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청송, 자동차세 12억1400만원 부과… “연납하면 세액 공제도”

다음달 1일까지 납부 ‘독려’

청송군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140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만2343대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

으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올해분의 자동차세가 이달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 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더불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870-6158)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훈련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 구미, 방산·에너지로 '잘사는 지방시대' 신호탄

### 하이테크밸리 내 총 57만평 지정 세계·재정·규제특례 종합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업 육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젠걸음'

구미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 돼 투자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이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되며 민선8기 혁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핵심 국정사업인 기회발전특구에 경북도가 포함된 구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구미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

모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재정 지원, 규제특례, 경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구미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초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결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구미시 기회발전특구는 반도체·방산·이차전지 분야 투자기업과 하이테크밸리(5산단) 및 산단 내 투자가능부지 등 총면적 57만평이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SK실트론, LG이노텍 등), 방산(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이차전지(LG-HY BCM, 피엔티 등)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기회발전특구 고시 등 정부의 세부 지원방안이 구체화 되면 세계·재정 지원, 규제특례 및 경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 특화형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구미형 기회발전특구를 기획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지자체-지역기업-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지방시대 위원회를 비롯 정부부처, 국회, 관련학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주요 인사 등에 기회발전특구 필요성을 꾸준히 알렸다. 이밖에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병준 전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계 인사를 지역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를 건의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구미시는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대전환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방

산혁신 클러스터 등 윤석열 정부의 굵직한 국정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기반 및 첨단반도체 Complex 구축,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및 방산 R&D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투자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민선8기 2년간 첨단산업 중심으로 5조8000억원대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김강호 시장은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잘 갖춰진 도시로 이번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투자기업에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기업투자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며 "구미시는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 수영메카 김천시, 굵직한 전국대회 릴레이

### 7월까지 4건 김천스포츠타운서 선수단 체류로 지역 경제 활성화

김천시는 대한수영연맹과 공동으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 수영장에서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0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를, 29일부터 30일까지는 '제2회 김천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제20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는 유년부, 초등부, 중학부 선수 총 300여 명이 경쟁 종목에 참가하며 '제2회 김천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에는 700여 명의 학생부 및 성인부 동호인 선수들

이 경영, 수구, 아티스틱 스위밍 3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수영 대회로 인해 선수단이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는 이달에 이어 오는 7월에도 2개의 전국 단위 수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제1차 수영 등급제 인증대회'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는 '교보생명컵 꿈나무 수영대회'를 연이어 개최해 방학을 맞이한 전국의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발길을 김천시로 이끌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이차전지 앵커기업·전문인재 "상주로"... 기회발전특구 선정

###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11만3천평 이차전지 산업 육성 교두보 마련 대기업 3개·중기 25개 2조↑ 유치 첨단산업 도시 조성 목표 '박차'

상주시는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성+확장성을 핵심가치로 앵커기업들이 주도하고 이차전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계·규제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주형 기회발전특구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11만3000평이 지정됐으며 향후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58만평) 추가 조성으로 재투자를 유도하고 앵커기업과 상호협력, 수요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형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클러스터 글로벌화 추진 △산업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공공-민간협력형 자본체계 구축 △규제특례 지원체계 구축 등 6대 핵심전략으로 추



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리일반산업단지' 기반 앵커기업 주도형 클러스터 구축 △이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기반 소재부품 정비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산업중심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 △상주형 이차전지 K-U 시티 사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인제 양성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청년 인력양성 및 일자리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SK스페셜티㈜로 총 투자규모는 1조1000억원이며 향후 추가투자 및 관련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 현재 추진 중인 58만평 규모의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상주시는 지난 2월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과 연계 돌봄-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첨단산업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경북대 상주캠퍼스, 상산전자, 상주공고와 이차전지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기업근로자들의 경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공급,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문화예술회관 이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주거·문화·의료·복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2@naver.com

상주시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및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효과는 1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의 선순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향후 대기업 3개, 중소기업 25개 등 2조원 이상을 유치해 첨단산업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상주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상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 고령군, 책 쓰기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고령군은 2024년 고령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책 쓰기 프로젝트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 쓰기 프로젝트는 글쓰기와 출판에 관심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신춘문에 당선 작가와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진행되며 주제선정에서 글쓰기 연습, 원고 작성 및 피드백까지 문학적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생들은 여러번의 첨삭을 거쳐

수강 종료 후 팀원들의 글을 모아 완성본을 단편집으로 출간하게 된다. 출간된 책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를 발급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며 지역 도서관에도 등록돼 대출과 반납 가능해질 예정이다.

책 쓰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산도서관 누리집(http://lib.goryeong.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54-950-6271, 6276)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 중부 4개 권역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으로 전문성 견인

지난 14일 칠곡군 향사아트센터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직무교육을 칠곡군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집합교육으로 칠곡, 군위, 고령, 성주 권역 공인중개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및 칠곡군지회와 함께 칠곡군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서는 주요 불법중개행위 사례, 전세사기 및 강릉전세 예방 등 사례중심 교육과 최근 개정 법령 및 세법 관련 등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칠곡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중개관련 불법 행정처분 사례 및 지침 전달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지난 5월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사항 중 불법 컨설팅 금지, 임대차 거래시 확정일자, 세금채납 여부 고지 유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명기 등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 내달 '경북 최초 마을 경매' 산업 위상 견인

**신녕농협 마을경매식집하장 준공  
대서중 마을 올해 1만t 거래 목표  
유통 기능 강화·가격 안정 기대**

영천시시는 지난 21일 신녕농협 마을 경매식집하장 준공식을 갖고 오는 7월 1일부터 경북 최초 마을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녕농협 마을 경매식 집하장 준공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최기문 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하기태 시의회 의장, 이준우 경북의원, 박찬국 도 농식품유통과장, 전국 마을수매농협 조합장 등 7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는 신녕농협과 함께 마을 경매식 집하장 개설을 통한 물류·유통 기능 강화 및 거래가격 안정화, 영천마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 경매장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22년 11월 경북도 공모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농산물유통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설 규모는 집하장(3471㎡)과 운영시설(334㎡), 경매시설 등 부지면적 14380㎡이며 취급품목은 대서중 마을로 하루 경매량 1일 최대 400t으로 올해 목표는 1만t이다.

출하 방식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농가당 1일 300kg(20kg)까지 물량이 제한되며 경매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주 6일(일요일 휴무) 실시한다.

신녕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경매식 집하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향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농협 공판장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도내 최초 마을 경매장 개설을 계기로 영천이 마을 주산지 및 마을 산업특구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앞으로도 마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식열 기자jisy9230@hanmail.net

# 울진군, 범군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박차'

**학생·민간 주도 환경교육 실행  
우수마을 선정 지역 공감대 확산  
TF팀 구성 등 다분야 정책 추진**

울진군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범군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울진교육지원지청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도 홍보,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탄소중립실천 서약 등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 활성화 협력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기본 소양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방문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 학교가 신청해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환경보전 및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해 환경 관련 2개 단계가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만들기, 페트병 재활용 체험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 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분야 공모를 진행해 상반기에 1개의 비영리단체가 선정됐으며 하반기에 1개 단체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군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제1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선정사업을 시도한 결과 현재 10개 읍·면, 20여개 마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 마을들은 오는 11월까지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각 마을 주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율 및 실천을 평가해 연말에 6개 우수마을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도 홍보 및 가입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실천 도우미 채용과 더불어 지역 내 자체 탄소중립실천TF팀을 구성하고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포인트 가입 장구 운영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서약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는 군에 할당된 210대에 대한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에너지분야는 전년 대비 참여 가구 수가 80% 이상 증가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기자ksj09102@naver.com

# 지방정부 기틀 마련한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알찬 마무리

**제10차 정례회 열어 전반기 종료  
하반기 협의회장 의성군수 추대  
정책·규제 개선 등 주요 성과 만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영덕 강구건강활력센터에서 '민선8기 제10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지시설보조금 대비 지원에 대한 시·군별 기업투자금액 차등기준 마련(철국)에 대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북도에 정식 건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도 시·군



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및 규제 개선 건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는 시간도 가졌다.

전반기 협의회장을 맡아 협의회를 이끌어 온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정부의 열악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준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민선8기의 2년을 맞이하게 된 만큼 신임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경북 시·군의 공동 상생과 번영을 위해 적극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선8기 후반기 회장으로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연태 기자cvt4569@naver.com



# 신나게 놀면서 배우는 '화랑·새마을정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구어린이세상, 문화감수성 증진 MOU**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지난 21일 기획서 대표이사 및 김정학 대구어린이세상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화랑정신 및 새마을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조성된 청도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어린이 관련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공동이행 △어린이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운영 △화랑·새마을정신 함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의 시

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력 등이다.

이날 기획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배움과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힘쓰자"라고 전했다.

한편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화랑수련놀이 △화랑VR체험 △화랑정신함양 활동지 풀이 △로프체력 스카이트레일 △전통 공예체험이,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은 △새마을학습지 풀이 △스탬프 투어 △새마을교육체험 학습장 등이 마련돼 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경산,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공모 선정... 총 160억 투입

**AI미래인재·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경북 경산시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 자전거 등 모빌리티를 활

용한 도시데이터 수집 △환경화수소, 암모니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장소에 대기환경관리 측정 센서 구축 △AI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 수요 맞춤형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도시 앱(App)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최대 8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 신청 후 여러 차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경

산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지식산업지구, 입양 유니콘파크,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공모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도시, 경산'이라는 부제로 참여했으며 스마트도시 데이터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및 도시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daum.net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85 3층

☎ 054-771-3344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운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 전국 고교 유도 유망주들, 김천시 한판 승부

제95회 YMCA 전국유도대회 25~28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52개 팀 선수단 700여명 참가 지역 인파로 경제 활성화 '기대'

김천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제95회 YMCA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김천시와 대한유도회, 서울YMCA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유도회와 김천시유도회가 주관하며 전국 52개 팀의 고등학교 유도 선수단 7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임원, 학부모 등 1000명 이상이 김천시를 방문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대회가 남자 유도 금메달리스트 두 명이나 배출한 유서 깊은 유도의 고장인 김천에서 열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해

마다 50개 이상의 전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축적된 대회 운영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스포츠 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에도 YMCA 전국유도대회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김해목 대표, 살기 좋은 예천 만들기 '동행'

저출생 극복 성금 100만원 기탁 "받은 혜택 다시 나누고자 기부"

예천군 지보면 청년 농업인 김해목 행운복숭아농원 대표가 지난 21일 저출생 극복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해목 대표는 지보와 풍천에서 약 1만5000평 규모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명품 참복숭아로 저탄소인증, GAP 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 또한 온라인과 직거래 위주로 판매하며 '예천장터'와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등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다.

김해목 대표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예천군의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고 있고 저 또한 군에 보탬이 되고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청년이 살고 농업이 살아 있는 경북의



중심도시 예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하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철곡, 산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적극 홍보

안내지도 책자 1000부 읍·면 배포

철곡군은 최근 극한호우 등 산사태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시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방·대응 안내지도' 책자 1000부를 읍·면, 취약지역 주민, 마을회관, 유관기관 등에 제작·배포했다.

책자에는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30개소, 대피장소 70개소의 위치 안내 및 산사태 관련 국민행동요령 삽화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수록했으며 대피 시 필요한 생존 가방 체크리스트 등 군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작됐다.

또한 지역 내 산사태 대피소 70개소에는 대피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수기 점검 및 재난대응 매뉴얼 현행화, 주민 비상 연락망 정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책자를 통해 군민들이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을 익히고 대피장소의 위치를 파악해 상황 발생시 자발적인 사전 대피로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 어두운 도로 '더 환하게' ... 영주댐 일주도로 야간경관 조성

야간 시야 확보 어려워 지속 민원 가로등·경관조명 49km 설치 진행 '안전·미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영주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영주댐 일주도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영주댐 준공과 함께 진행 중인 '댐 주변 종합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영주댐 일주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은 구간이 많으며 야간에는 가로등 및 조명 시설의 부재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 2억5400

만원을 투입해 171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영주시는 지난달 기초 관광인프라 구축, 야간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약 49km에 달하는 영주댐 일주도로를 대상으로 '야간 통행환경 개선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으로 일주도로에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화 방안 및 관련 법령

을 검토하고 최종결과물을 토대로 경관 구역 및 디자인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은 야간통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해 우리 시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 K-water 봉화댐사업단, 세탁 봉사 '훈훈'

춘양면과 홀몸 어르신 6세대 대상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 실시

K-water 봉화댐사업단과 봉화군 춘양면사무소는 익지춘양주민문화센터에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 6세대를 대상으로 'K-water 사랑센터 이동세탁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이동세탁 서비스는 K-water가 보유한 이동식 세탁차량을 활용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침구류 등을 무료 세탁·건조해 드리는 특색있는 사회공헌활동

이다. 춘양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홀몸 어르신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봉화댐사업단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이불 등을 수거했다.

또한 세탁·건조 실시 후 세탁물을 대상자에게 다시 직접 돌려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권이재 봉화댐사업단 단장은 "주위 소외계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봉화군 춘양면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K-water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 지역사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의성,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 시작

의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의성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성조문국박물관 홈페이지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성 근·현대 사진아카이브 사업은 급격한 산업화와 주민들의 노령화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라 의성의 근현대 기록을 보존하고자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지난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추진해 총 5만1327컷의 사진 자료를 DB화 했다.

아카이브 자료는 해암 사진갤러리 김재도(87) 대표의 사진으로 지난 1960년대부터 의성의 옛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으로 의성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대국민 서비스는 총 5만1327컷의 자료 중 의성의 역사·사회·문화 그리고 자연환경 부분으로 나누고 선별해 5000여점의 사진을 게재해 지역민들은 물론 근·현대 연구자들에게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근현대 기록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아주 귀한 문화 원형 콘텐츠가 될 것이며 이를 활용해 의성의 근현대사 연구는 물론 문화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더블에이치플랜

## DHP

###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 대구·경북 제조업 산재사망 사고 61.1% 감소

###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천 노력 대구시·노동청, 우수사업장 선정 에스엘(주)·풍국주정공업(주) 등 5곳 인증서 수여·정부지원사업 우대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202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더불어 해당 사업장의 우수사례 노하우를 공유하는 발표 경진대회를 지난 19일 오후 3시에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상반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은 에스엘(주) 대구공장 △㈜엘앤에프 구지2공장 △대성에너지㈜ 본사 △풍국주정공업(주)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등 5개 사업장이다.

우수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작입 현장에 정착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으로 대구지역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 평가 수준이 '상' 수준인 14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5월 한달간 현장 확인과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 우수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지원사업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우수사업장 중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행사에서 대구시장 표창 및 최우수사업장 인증서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대구·경북지역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직업병 안심센터의 관계자와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대표,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특히 우수사업장에서 발표하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계자의 많은 질문과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대 행사로 이어질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천 확산 및 대구경북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와 연계한 미술공예도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기대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각 사업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자율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해 '상', '중', '하'로 등급을 부여하고 '하' 수준 사업장은 다시 세분화해 '하-상, 하-중, 하-하'로 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천 노력으로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올해 6월 현재 기준 7명(61.1%) 감소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부터는 경북도와도 함께 경북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사례를 많은 사업장에서 벤치마킹해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에서 더 나아가 행복한 일터가 대구·경북지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 경진대회는 지역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인종하고 표창해 자긍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뜻깊은 대회"라며 "향후에도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구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의성, 글로벌 세포배양식품 산업 육성 지역 경제 넘어 국가 경제 견인 '최선'

### APAC-SCA·경북TP와 MOU

의성군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세포배양협회(APAC-SCA), 경북테크노파크와 세포배양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 의성군 철파리(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지난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후 세포배양식품 규제 관련 기술 협업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아시아·태평양 세포배양협회(대표 피터 유, Peter Yu)는 지난 2022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단체로 세포배양식품 관련 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10개사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세포배양식품 협회이다. 협회 회원사로 활동하는 기업에는 이번 경북 세포배양식품

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인 ㈜다나그린, ㈜씨위드도 포함돼 있다.

협약식에서 군은 아시아·태평양 세포배양협회와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 총괄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식품 안전, 효능, 품질에 대한 규제 관련 기술 협업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규제 관련 문서 공동개발 등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세포배양식품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의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화 '박차'

### 선도 기업·공공기관과 업무협약 국내·외 수출형 생산 모델 개발 생산·활용 위한 기반 조성 등 협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삼성물산㈜, 두산에너지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력거래소가 19일 서울 한수원 방사전보관에서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국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인 수행과 적기 사업화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대용량 상용 플랜트 구축·운영 △국내 및 해외 수출형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사업모델 개발 △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사업 기반 조성(안전·규제, 법·제도 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4년간 12개 기관과 협력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원전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사장은 "청정수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에너지 안보를 실현



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안동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추가할인

### 영세소상공인 보호·물가안정 '힘'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등록 확대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안동사랑상품권 추가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외식업 22개소, 미용업 4개소, 세탁업 3개소로 총 2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지원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모

바일 안동사랑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과 더불어 5% 할인을 받아 총 15%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안동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은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 및 등록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이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 영세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 케이메디허브 '무혈성 골괴사증 바이오마커' 국제학술지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무혈성 골괴사증 바이오마커를 발견해 국제학술지 'Clinical Proteomics(IF=3.476)' 최신호에 게재했다.

무혈성 골괴사증은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뼈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과 관절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발견이 어려워 질환이 만성화되는 시기에 진단되므로 조기 진단

방법 개발이 필요한 질환이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성수는 선임연구원은 무혈성 골괴사증 환자의 혈청에서 분리한 엑소좀(Exosome)에서 정상인 대비 VWF, PRG4 등 특정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엑소좀을 활용한 진단 바이오마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 혈청 내 엑소좀을 활용한 무혈성 골괴사

증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성수는 선임연구원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서민수 교수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근우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엑소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진단 의료제품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제23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 성료



영양군은 지난 20일 제23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탁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영양군 내 6개 읍·면 및 기관단체에서 총 16개 팀 약 100명이 참가해 경기를 펼친 결과 읍·면 부 우승 수비면, 기관단체 부 우승은 군청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군에서는 해마다 일월산 전국 오픈탁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탁구대회를 개최해 탁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영양군의 대표 생활체육 종목으로써 탁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 탁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구미소방서, 119소방정책 '최우수'



구미소방서가 지난 21일 제36회 119 소방정책 콘퍼런스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소방본부가 주관한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는 경북도 내 21개 소방서 대상 1차 논문심사 실시했으며 채택된 우수논문 소방서 5개 팀이 이날 본선을 치렀다.

구미소방서 연구팀은 재난환경 소방차량 지휘망 구축을 주제로 드론과 IoT 기반 소방차량배치시스템(FTPS) 제안을 발표해 최우수에 선정됐다. 또한 오는 10월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대회에 경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임준형 서장은 "이번 콘퍼런스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접목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경주골프협, 무더위 날리는 시원한 희망 '선물'

경주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탁

경주시골프협회가 때 이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시원한 나눔을 펼쳤다.

조봉래 협회장 등 10명의 회원들은 지난 21일 경주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을 전달한 후 교정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한 생수 1만병은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고생하는 수용자들에게 지금과 건강함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소장은 "항상 수용자들에게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기부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주시골프협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회원분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며 앞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조봉래 협회장은 "선물 나눔에 동

참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

도록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지·덕·체 합일... 도지사기 생활체육검도대회

경주 실내체육관서 성대히 개최

제25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검도대회가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검도회(회장 백낙주)가 주최하고 경주시 체육회, 경주시검도회가 주관, 경북도, 경북도체육회, 경주시가 후원하며 경북지역 18개 시·군에서 선수, 임원, 학부모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 중 하나로 도지사기 검도

대회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이다.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검도대회는 지·덕·체를 겸비한 우리 조상들이 닦아 온 무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규범적인 예의를 알게하고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특별한 축제이다.

백낙주 경북검도회장은 "검도는 예를 중시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인격을 수양하는 운동"이라면서 "수련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며 스승님에게는 공경심을 주변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며



몸과 마음을 굳건히 해 도덕적 흠결이 없는 훌륭한 검도인으로 성장하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최익봉 前 특전사령관, 의성에 시상금 기탁



의성군은 지난 19일 최익봉 前 특전사령관 예비역 중장(현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총재)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평면 청운리 출신인 최익봉 중장은 지난 15일 제3회 태극타이거

무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기부는 시상금으로 이뤄졌다.

최익봉 중장은 "시상금을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의미있는 곳에 쓸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문경 점촌여성의소대, 사랑의 쌀 20포 전달



문경시 점촌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9일 지역사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쌀 10kg 20포를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또한 점촌여성의용소방대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쌀 기

탁 또한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정은 대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동 정

경북학교운영위원장협 정기협의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4일 오후 4시 영주인삼박물관에서 열리는 경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협의회에 참석한다.

경북학교운영위원장협 정기협의회



박남서 영주시장은 24일 오후 3시 영주인삼박물관에서 열리는 경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협의회에 참석한다.

의무물자지원단 사령관 이취임식



이남철 고령군수는 24일 오전 10시 칠곡군(캠프캐럴)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의무물자지원단 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총회



박현국 봉화군수는 24일 오전 11시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 홀서 열리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 참석·업무 보고 청취



최재훈 달성군수는 24일 오전 9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예천, 어린이집 대상 기후위기 특강



예천군은 지난 18일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예천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군에 요청해 실시됐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환경 지식을 전달해 유아들의 생애 최초 환경교육이 올바른 지식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의관정제 선비의갯. Includes a table with program details and logos for the organizing institutions.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손병복 공공위원장, 손정일 민간공동위원장)는 지난 19일 울진지역자활센터 2층 교육장에서 북부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진군 복지아카데미' 2회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관협력의 중심점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경일대학교 미래융합과 학장인 임태영 교수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와 협의체 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 12일 남부권 1기 복지 아카데미에 이어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요성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위원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로 배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손병복 군수는 "복지 아카데미를 통해 나는 정보와 지식이 주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져 군민이 함께하는 복지, 행복 가득한 복지 울진을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

영양, 산사태 취약지역 교육 실시



영양군은 최근 6월 마을순찰대 소속 이장 및 공무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산사태 취약지역 및 피해 예측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중호우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산사태 취약지역과 피해예측구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등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장 및 공무원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학습하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태기자tae66611@naver.com

#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더 넓은 세상으로 동행

## 중증장애인 해외 문화탐방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적인 삶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5일간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에는 중증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랑콩뜨레 과자점 직원 등 28명이 참가했다.

문화탐방에 동행한 한 지적 장애인 회원은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와보니 너무 좋아서 기회가 되면 해마다 가고 싶다. 열심히 일을 하며 내년을 위해 돈을 모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지적 장애인 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가보는데 이렇게라도 해외를 갈 수 있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은 랑콩뜨레 과자점 경주지점 사장은 "3박 5일 장애인과 같이 있으면서 힘이 들 때 손 내밀어주고 서로 맘을 닦아주며 우정이 쌓이는 시간이 됐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이번 동행을 통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이 얻어만 가는 것 같다. 앞으로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에 한 사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김한성 월성본부장, 건보 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지난 20일 김한성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 '일일명예지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위촉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된 김한성

본부장은 지사 업무 현황보고에 이어 공단의 현안 토의, 업무 체감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갔다.

김한성 본부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성주 대가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 쏟을 것" 봉화초, 교사들과 지역 교육 발전 '한마음'



성주군 대가면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참전 유공자 가정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준기(대가면 흥산리) 어르신은 "해마다 우리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일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다. 이명진 면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고귀한 노력과 희생 덕분에 건설됐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예우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기자hoyaf1515@daum.net



봉화초등학교는 지난 20일 지역 내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전문가 수업 나눔 및 저경력 교사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수업 나눔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구성된 수업활동이 펼쳐졌다.

수업공개 이후 진행된 교사들은 저경력 컨설팅 및 수업 나눔회에서는 교

육적인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며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강성호 교장은 "봉화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방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취영기자jhy4430@hanmail.net

## 성주 선남면,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19일 명포리 마을회관 전정에서 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고를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했다.

'별고를 찾아가는 빨래방'은 이불 빨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정에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환경 및 위생개선에 도움을 주는 취지로 운영되며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날은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더운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시원한 수제 팥빙수를 준비해 대접했다.

김일호기자hoyaf1515@daum.net

## 예천, 탄소중립 인식 제고 팔 걷어



예천군은 경북도환경영향수원 주관으로 지난 20일 지역 내 이장 등 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환경영향수원이 주관해 기후위기 현황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병우 안동시환경교육센터장과 전은정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원순환과 녹색소비 실천'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지도자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실천수행으로 실천해 군민에게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공정의 힘! 문경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공정의 힘! 문경

# 대구오페라하우스 “1만원대로 최고 수준 작품 즐겨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엘리버드 할인 오픈... 7월 1일까지 진행  
메인오페라 전석 30% 싸게,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로 개막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장정... “의미있는 올림 전달”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오는 10월 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을 앞두고, 엘리버드(조기예매) 할인을 진행한다. 혁신적인 작곡가 슈트라우스의 최대 흥행작 ‘장미의 기사 Der Rosenkavalier’로 개막하는 이번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36일간 다섯 편의 메인오페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길을 열고 나아가다’

20주년을 넘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제는 ‘길을 열고 나아가다’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정갑균 관장은 “유명 작곡가의 대중적인 오페라들로 구성된 안전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래밍들과 달리,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통해 항상 새롭고 선구적인 작품들을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고심해왔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독일 근대오페라의 상징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를 지역 최초로 선보이고 비발디의 오페라를 한국 초연하며, 순수 창작오페라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새로이 개척하는 모습으로 높아

져가는 관객의 눈높이와 축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한국 오페라계에 의미있는 올림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개막작은 혁명적인 오페라 작곡가 슈트라우스의 최대 흥행작이자, 중세 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에 여왕 시대를 중심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장미의 기사 Der Rosenkavalier’다. 대구 초연으로 선보이게 되는 ‘장미의 기사’는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사랑했던 작품으로 아름답고 황홀한 음악으로 가득하다.

두 번째 주에 이어지는 작품은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오페라극장으로부터 초청한 비발디의 ‘광란의 오페라도 Orlando Furioso’ (한국 초연)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상호 초청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오는 2025년 2월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안드레아 세치에’ 프로젝션을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오페라극장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에 공연되는 작품은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지난 2021년부터 추



진해 온 ‘카메라 창작오페라 연구회’의 결실인 ‘264, 그 한 개의 별’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지역 출신의 문학인 이육사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로 2012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대상을 수상한 ‘청라인덕’의 작곡가 김성재와 2019년 대한민국오페라축제 대상을 받은 ‘윤심덕, 사의 찬미’의 대본가 김하나의 작품이다. 네 번째 메인오페라는 국립오페라단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I vespri siciliani’다. 프랑스로부터 자유를 갈망해 오던 시칠리아인들이 부활절 저녁기도 중 소리를 신호삼아 독립을 외쳤던 ‘시칠리아 만종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베르디 오페라 중 가장 웅장한 서곡을 가진 작품이기도 하다. 마지막 메인오페라는 영원한 오페

라계의 베스트셀러,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다. 광주시립 오페라단이 제작한 프로젝트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와 광주 간의 예술교류를 기반으로 한 ‘달빛동맹’의 일환이다.

### ■ 남춘모 작가 신작으로 제작된 포스터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에 앞서 부조회화의 대가 남춘모 작가의 최신작 ‘Stroke-line 24-2(2024)’을 활용해 제작한 강렬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난 20주년 축제 당시 남춘모 작가의 작품을 활용한 포스터 이미지로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 축제에도 그의 작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얼굴’을 만들어 낸 남춘모 작가는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지역출신의 중견작가로 지난 2019년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독일 코블렌츠 루트비히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2022년에는 프랑스 생테티엔 세손 앤 베네티에르 갤러리 본점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세손 갤러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룩셈부르크점에서 새 전시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종합포스터 뿐만 아니라 메인오페라 5편의 개별포스터에도 남춘모 작가의 2024년 신작들이 활용될 예정이다.

### ■ 엘리버드 예매 시 전석 30% 할인, 그레이석 50% 할인

한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티켓 할인 이벤트인 ‘엘리버드(조기예매)’를 오는 7월 1일 밤(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엘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은 메인오페라 공연 좌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최저 1만 4000원이라는 가격에 최고 수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엘리버드 기간 동안 VIP석, S석, A석, B석의 한정된 수량을 정상가의 50% 할인해서 제공하는 그레이석(GV석), GS석, GA석, GB석)을 구매할 수 있어 더욱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엘리버드 티켓예매 이벤트에 해당하는 공연은 메인오페라 다섯 편(장미의 기사, 광란의 오페라도, 264 그 한 개의 별,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라 트라비아타)이며, 티켓 가격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다. 메인오페라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들은 일반 예매가 시작되는 오는 7월 2일부터 예매 가능하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티켓예매는 인터파크 콜센터(1661-5946),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욱기자kwondrumkako@daum.net

울진문화회관, 발레극 ‘사랑에 미치다’ 7월 4일 개최, 군민은 관람료 50%할인

울진군은 오는 7월 4일 저녁 7시 30분에 울진문화예술회관(후포)에서 발레극 ‘사랑에 미치다’ 공연을 개최한다.

‘사랑에 미치다’는 국립발레단, 루마니아 국립오페라 발레단 주역 무용수 윤전일을 중심으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의 최고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감성발레극이다. 초연 이후 전회 전석 매진기록, 2022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신승원, 국립현대무용단원 안남근, 댄싱9 출신 한선천 등이 출연해 세 가지 무용 장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울진군민은 50% 할인된다. 자세한 공연 문의는 문화예술회관(054-789-5454)으로 하면 된다.

손병복 군수는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을 통해 군민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

### 안동시립중앙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열정 가득 ‘특별한 재즈공연’ 26일 선배

안동시립중앙도서관은 오는 26일 저녁 7시 중앙마당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특별한 재즈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퓨전 재즈밴드 ‘리스트리오’와 래퍼 ‘이규환’이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재즈 공연으로 영화 OST, K-POP,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즈로 재해석해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리스트리오의 드럼, 베이스, 피아노의 하모니를 바탕으로 실험적이고 독특한 음악적 시도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즈밴드이며, 이규환은 쇼미더머니 5 출연으로 인지도를 얻어 지난 2017년 이루마와 콜라보한 앨범을 발매하고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래퍼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도서관 야간산책 행사의 일환으로 조성된 야외산책로(6월 30일까지)의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한 여름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의 배정 좌석 50석은 사전접수로 진행되고, 행사 당일에는 스탠딩으로 현장 관람도 가능하다.

안동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립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대출 두배로 데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 대구 청년예술가 이상명 연출 ‘평화’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고민  
사람·집단·세계 확장 작품 구성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7기 청년예술가 연출가 이상명 연출작 ‘평화’가 대구를 대표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진출을 준비한다.

문예진흥원 청년예술가 7기 선정자 연극(연출) 이상명 연출가는 대구에서 극단 백치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다양한 작품과 역할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이상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사람, 집단, 세계로 확장적 시도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대구 유망연출가다.

연출가 이상명의 작품 ‘평화’는 지



난 4월 제41회 대구연극제에서 대상상을 수상했다.

같은 작품으로 연출상도 수상한 그는 이달 대구를 대표해 경기도 용인에

서 개최되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경연에 출전한다.

연출작 ‘평화’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며 전쟁이 끝나

기를 바라는 열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마주할 세계에 대한 메시

지를 담아 장안, 각색한 작품이다.

청년예술가 이상명은 “대구 청년예술가를 대표해 전국대회에 출전함에 자부심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순간을 즐기며 유쾌한 여정을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열정 있는 연출과 배우진 그리고 멋진 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싶다”고 전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중 대구 본선은 오는 7월 6일 오후 3시, 7시 30분에 용인시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다.

한편 문예진흥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지역 내 35세 이하 청년예술가 15명을 선정해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멘토링,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강동욱기자kwondrumkako@daum.net

**경북의 문화재에서 내 인생샷을!**

경북의 문화재와 함께하는 당신이 바로 드라마 속 주인공입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의 문화재와 함께하는 당신이 바로 드라마 속 주인공입니다

#영주\_무심마을 #예능\_바퀴달린집 #경북\_국가민속문화재

#영주\_대릉원 #영화\_경주 #경북\_사적

#성주\_한계마을 #드라마\_연오 #국가\_민속문화재

#안동\_만홍정 #드라마\_미스터션샤인 #경북\_문화재

■ 특별기고

### 대구·경북의 행정난맥상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첫째 지방자치 민선7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관 주도 밀어붙이다가 무산이 됐는데 지금 8기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시·도지사가 말부터 시작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정책수립과 의회협의와 시·도민공청회 등 그 어떤 합리적 절차 없이 정략적 판단으로 선포부터 한다. 행정은 정치방식 톱·다운이 없을뿐 아니라 월권이고 위법이다.

둘째 '맑은물 하이웨이' 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지난 2009년에 무산된 안동댐 취수방안을 재탕하고 있다. 이 역시 지도자의 말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는 안됐고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된다는 초안이 나왔다고 한다. 자연환경과 기술적인 조건이 변한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1일 46만t까지는 된다는 것이다. '맑은물 하이웨이' 원안은 1일 63만t이므로 17만t은 다변화 방식으로 강변여과수나 자체수원 개발 등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1년 페놀오염 사태부터 무려 33년이나 고착된 대구취수원 이전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경사이다.

그런데 왜 행정난맥상이라고 해야 하나? 과

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수질·수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이 두 가지 난맥상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통합방안은 절차적 민주성에 따르고 취수원 이전은 자연과학과 기술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합은 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해야 하며 취수원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수질을 확보하고 수량은 기술적으로 재이용까지 가능하다.

절차적 민주성의 1단계는 헌법,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의 법·제도부터 제·개정해 효력을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2단계는 정책수립을 해 전문기관 자문, 관련부서 협의, 의회 동의, 공청회 토론, 시·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2/3 이상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는 시·도광역통합은 현행법령도 사례도 없는 지방구조 개편이므로 법·제도를 정비해 국가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마치 삼국시대 같은 각축전을 벌여서 누가 먼저 통합을 할 것인가? 난센스를 부려서는 안 될 일이다. 수도권 불력을 견제하는 대의명분은 좋지만 지방균형발전에 실속 없는 정략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취수원의 자연과학과 기술적 근거의 1단계는 수질 확보이다. 지금 취수지점이 안동댐 밖으로 나와서 조금 덜 하겠지만 지진이나 홍수 등

으로 댐 바닥에 침적된 중금속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한반도의 지진 빈도와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극한 집중호우로 홍수나 댐월류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2단계는 수량 확보이다.

수질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수준 낮게도 지금까지 수량 싸움만 해왔다. 그러다 보니 기어이 중금속이 쌓인 안동댐에서 1일 46만t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연 극한가뭄 시에 그만큼 수량이 지속가능할지 조안의 수량 분석은 시간이 검증할 것이다. 또한 하류지역의 용수공급변화에 지역주민들이 동의할지 궁금하다.

취수원 이전은 물리적인 과학기술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3단계는 현재의 낙동강 상태로는 차선책이지만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경북도청 구간에서 강물순환시스템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다.

1일 100만t 급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경북지역까지 맑은 상류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것도 현행 상수도시스템 그대로 재처리 공급하면 된다.

대구·경북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임진왜란을 막아내며 일제강점기 독립을 쟁취해 6·25 낙동강 방어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마울운동과 공업화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축이자 민족정신의 선구자이다.

더 이상 대구·경북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정할거주의 난맥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 독자기고

### 자치경찰에 자치가 없다

박권욱  
대구시 자치경찰위원



제2기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27년 5월 19일까지 활동한다. 지난 2021년에 시행된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라고 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위원회 구성에 시장과 의회 교육감의 추천 그리고 추천위원단에 의한 추천이라고 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몫도 부여하고 있다.

사무국을 지휘하는 상임위원은 시장의 위원장 지명권과 함께 자율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추천과 시민추천의 조화를 이룬 자치경찰업무에 특정기관의 의사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의사결정의 자치화를 도모해야 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전체 경찰의 14%에 불과하다. 즉 대구경찰 중에 국가경찰이 88%나 된다.

지극히 지방자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찰 즉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 국가경찰로 분류돼 있다. 이는 인적 구성이 비자치화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용·승진의 문제점을 비롯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승진을 하려면 승진심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경찰서장이거나 시경청장에게 속해 있다.

비록 자치경찰이 심사위원으로 심사위 구성에 참여할 길은 열려 있으나 시각을 바꿔 독립적인 승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에게'라는 취지에 맞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업무의 실질적인 자치화이다.

법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를 자치경찰의 업무로 하고 있으나 이들 업무는 대부분 국가경찰인 경찰서·경찰청을 떠나서는 업무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수준이다.

위로는 국가의 손으로부터 자치를 놓아주도록 해야 하며 아래로는 자치위원회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작은 것부터 자치업무의 실질적인 자치화를 지향하는 것이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사명으로 보인다.

■ 사설

### 인구 국가비상사태 전 국민이 함께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본격적인 범부처 대응에 나선 것에 그치지 말고 청년층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추가 '충격 요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여기서 그쳐서는 출산의지를 접은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그간의 인구 정책을 '안이한 인식', '정책 대응 실기' 등으로 표현하며 실패를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저고위는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될 예정이다.

주행한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했다"라며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정부의 인식전환 자체는 높이 평가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절박함이 좀 보이는 것 같다"며 "그간의 저출산 대책은 선언적인 이야기들만 확장됐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시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 상한)로 높인다. 육아기 단축근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그린벨트 해제 후 신혼·출산가구 공급 확대, 청약 요건 완화 등도 담겼다.

다만 정부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파격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최근의 물가, 주거비용 수준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더 올릴 필요성도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전 통계청장)은 "정부가 그동안 냈던 인구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이고 규모도 큰 대책"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청년 남녀의 마음이 일종의 '선'을 넘었다고 할까,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는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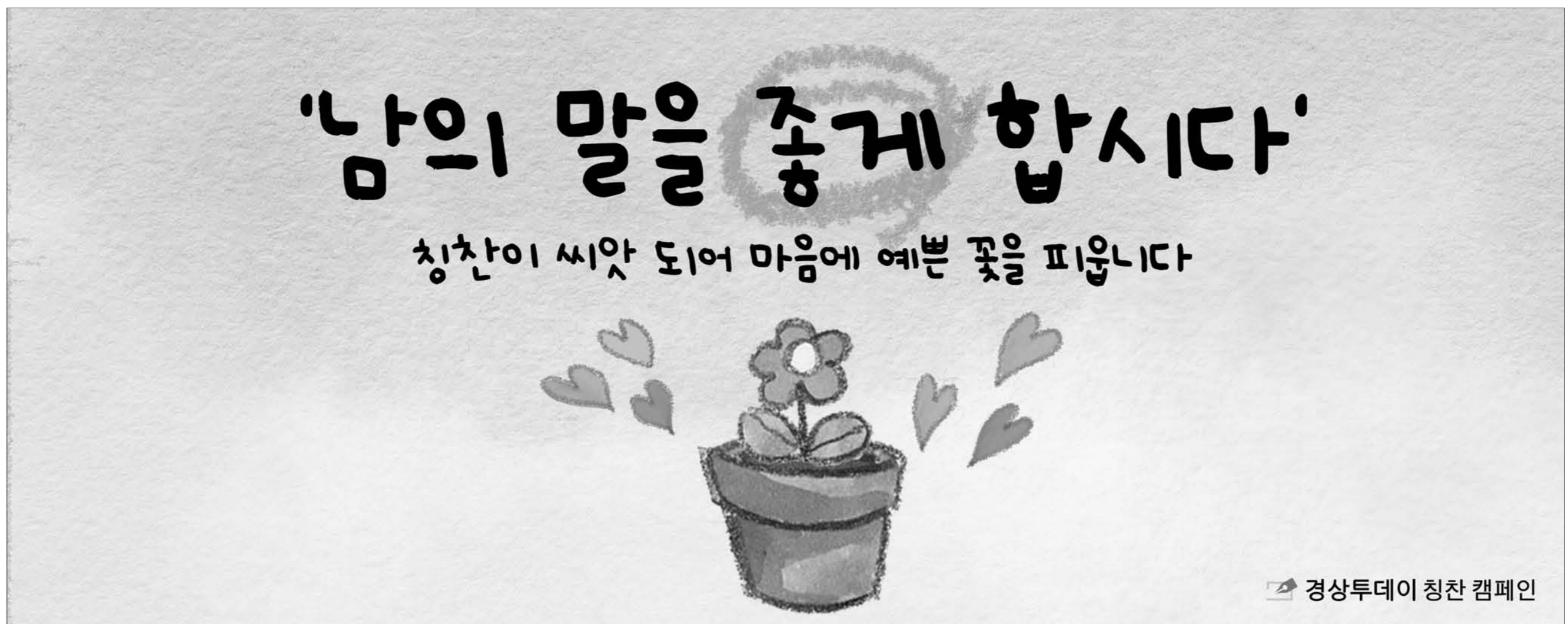
이어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이들에 대한 더 세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으로 월 250만원을 받는다 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본인들의 월급 수준에 맞춰 받았던 주택 대출을 비롯해 추가로 발생하는 육아비용 등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월 지급 상한액을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더불어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되는 저고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구 문제는 미시적인 것이 아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하고 교육 개혁이 일어나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방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경상투데이배 전국아마추어 GOLF대회



대회장 김 효 철

2024/7월 29일(월)  
장소/경주신라CC



### 주최/주관/후원

- 주최 | 경상투데이
- 주관 | KTPGF 한국티칭프로 골프연맹
- 후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

### 참가접수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아마추어골퍼 160명 (40팀, 입금순)
- 경기방법: 신페리오방식 (조편성은 랜덤)
- 접수방법: KTPGF 한국티칭프로골프연맹
- 문의: M. 010-3501-6073
- 접수기간: 6월 17일(월)부터 접수마감시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비: 1인 22만원(그린피·카트비 포함, 저녁식사제공, 캐디피, 그늘집은 참가자 본인 부담)

### 시상내역

메달리스트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우승(신페리오)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준우승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롱기스트상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니어리스트상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홀인원상	지정홀 최초 해당자		
포토제닉상	상품	다버디상	상품
베스트드레서상	상품	다보기상	상품
최고령자상	상품	다파상	상품
최연소자상	상품	양파상	상품
행운상	상품(현장추첨)		

※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과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02-0716-2732-61(예금주 백승만, KTPGF)  
※ 신청 마감 후 참가 취소시 참가비 환불 불가  
※ 우천시에도 대회 정상 진행